

川上健三說의 虛實(一)

권오엽*

(e-mail : kwonoyub@naver.com)

目 次

- 1, 서
 - 2, 조선인의 독도인식 부정
 - (1) 한국기록의 부정 (2) 相距不遠의 二島
 - 3, 안용복의 부정
 - (1) 기록의 기본인식
 - (2) 울릉도와 자산도의 일본인
 - (3) 안용복의 송도 인식
 - ① 조선기록의 송도 ② 무루구세무와 부른세미
 - (5) 서계의 존재
 - 4, 결론
-
-

1, 서

독도를 죽도라 칭하는 일본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으로도 일본의 고유영토라며, 한국의 통치가 국제법상 근거 없는 불법점거라는 주장을 한다. 일본이 죽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확립하기 이전에, 한국이 이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¹⁾ 가와카미겐조(川上健三)의 『竹島の 歴史地理學的研究』를 근거로

* 忠南大學校 日語日文學科 教授

1) 竹島の領有權に関する我が国の一貫した立場. 竹島は、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かつ国際

하는 주장이나 2) 그 주장 자체가 허구의 점철이다.

외무성 조약국 참사관이었던 가와카미는 순수한 역사지리학적 견지에서 죽도의 사실관계의 규명을 목적으로 한다 했으나, 자료의 선택이 목적적이고 해석이 자의적이다. 그는 조선이 1904년까지는 독도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고, 그것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조선의 기록과 안용복을 부정한다. 그것은 안용복의 진실이 허구일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는 주장으로, 안용복의 진실이 사실일 경우에는 저절로 붕괴되게 된다. 안용복의 독도 인식과 병립할 수 없는 것이 가와카미의 주장이기 때문에 안용복의 진술을 허구와 과장으로 단정하고, 그것을 기재한 조선의 기록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용복에 대한 기록은 조선의 기록만이 아니라 일본의 기록에도 있어, 안용복이 진술한 내용의 진위는 물론 그것에 근거하는 기록들의 진위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져 부정당한 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외무성은 주장을 바꾸지 않고, 역사적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안용복의 진술의 사실성이 확인되면 철회되어야 할 것이 일본의 정통성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1905년까지 독도의 이름도 확정하지 못할 정도였다. 17세기에는 울릉도의 영유를 주장하다 철회하고, 일본인의 도해를 금하는 명을 내린 일도 있다. 그런데 갑자기 19세기 말부터 자의적인 태도를 취하더니, 20세기에 들어서자 침탈의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17세기의 도해금지령에 독도(송도)라고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것을 빌미로, 그 금지령에서 독도를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소유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모순을 노정시킬 뿐이다.

조선이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무주지였기 때문에 죽도로 개명하여 시마네켄(島根縣)에 편입시켰다는 주장은, 조선의 1904년 이전의 인식을 확인하면 붕괴되는 것으로, 그것을 전거로 하는 정통성도 붕괴되게 된다.

이하에서는 가와카미의 주장과 그것이 가지는 모순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는 한일 양국의 많은 자료를 인용하며 조선의 독도인식을 부정했으나, 그것은

法上も明らかに我が国固有の領土です。韓国による竹島の占拠は、国際法上何ら根拠がないまま行われている不法占拠であり、韓国がこのような不法占拠に基づいて竹島に対して行ういかなる措置も法的な正当性を有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韓国側からは、我が国が竹島を実効的に支配し、領有権を確立した以前に、韓国が同島を実効的に支配していたことを示す明確な根拠は提示されていません。(日本外務省홈페이지, 2008년 9월10일).

2) 1909년에台北에서 출생하여 1933년에 京都帝國大學文學部史學科卒業하여, 臺灣에서 일시 교직에 종사한 후, 參謀本部 大東亞省에서 근무. 전후에 外務省條約國參事官, 蘇聯公使 등을 역임하고, 1972년에 용퇴와 동시에 外務省 참여, 문학박사, 일소어업교섭에는 제1회부터 일본대표의 일원으로 참가했다. 조약문제의 권위, 1995년에 서거(『竹島の歴史的地理學的研究』의 저자소개, 1996년 6월 5일).

기록된 내용을 왜곡해석한 결과였다. 기록을 편의적으로 취사선택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목적인 결론을 도출해낸 것이다. 그것은 기록들을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 『삼국사기』 이래의 많은 기록은 동해에 존재하는 울릉도와 독도가 512년에 신라에 복속된 이래 고려와 조선왕조가 계승하여 통치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

2, 조선인의 독도인식의 부정

(1) 기록의 부정

가와카미는 일본의 竹島에 대한 통치가 조선보다 선행한다며, 일본 어부가 1618년에 면허를 받고 도해하다 松島 도해면허까지 받았으나, 조선이 그것을 인지하고 개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헌과 지도를 찾아낼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³⁾

그것도 한국의 기록을 소개하고 부정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그가 인용한 한국자료는 『삼국사기』를 비롯한 『삼국유사』 · 『고려사지리지』 · 『세종실록지리지』 ·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으로 광범위하다. 『삼국사기』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열전」과 『삼국유사』까지 비교하여 이사부를 朴伊宗으로, 우산국을 弓陵(羽陵島)으로 기록된 것까지 언급했다.⁴⁾ 그러면서 기록이 울릉도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독도를 기록에서 제외한다. 우산국의 「國」이 갖는 영토의 의미를 생각하면 울릉도 주변의 도서들이 포함되어 마땅함에도 「국」에서 독도를 제외시키고 만 것이다.⁵⁾

『고려사지리지』와 그것이 참고했을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을 통람하고 국명으로는 于山, 島名으로 鬱陵(弓陵·羽陵·芋陵)으로 정리했다. 국명으로 칭할 경우와 도명으로 칭할 경우의 차이가 있으나 결국은 같은 울릉도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산국」과 「울릉도」를 일도이명으로 하면, 『고려사지리지』의 「一云于山武陵本二島」, 『세종실록지』의 「于山武陵二島在 嶺正東海中」, 『신증동국여지승람』의 「于山島鬱陵島一云武陵一云羽陵二島在 嶺正東海中」이 문제로 남는다. 이는 동해에 이도가 있다는 내용으로, 고려와 조선왕조의 인식을 반영한 내용으로, 이것의 인정은 조선이 독도를 인

3) 川上健三『竹島の歴史的地理學的研究』(古今書院, 1966, 1월5일, 1696년6월 5일), P94.

4) 前掲書3, P98.

5) 拙稿「于山國의 종교와 독도」『日本語文學』제36집(韓國日本語文學會, 2007).

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편입시켰다는 주장을 부정하는 일이 된다.

그래서 가와카미는 기록이 울릉도에 한정된다는 것과 「일운」·「일설」을 자의적으로 취사하는 방법을 취했다. 간행 연도로 보면 『세종실록지』(1432)가 『고려사지리지』(1451)보다 먼저이나 『세종실록지』에 태종 16년에 김인우를 울릉도에 보낸 사실을 기재한 것을 근거로, 적어도 울릉도에 관한 기사는 『고려사지리지』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였다. 『고려사지리지』에 조선의 기록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기록의 특성을 인정하기 보다, 모든 기록이 같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편찬된 것이라는 인식에 근거하는 一系化 인식이었다.

하나로 정리하여 완성한 기록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록의 선후를 따지는 것은 그것의 본질을 떠난 자료의 윤색이다. 이는 기록의 공통점을 중시하고 차이를 보이는 내용은 부정하는 인식으로, 다른 내용의 기록은 오류로 처리하는 사고다. 다음과 같은 주장이 그 좋은 예이다.

원래 『고려사지리지』에 울릉도에 관한 주기로 「在縣正東海中」이라고 있는 것을 『실록지리지』에서는 이것을 「于山武陵二島在縣正東海中」으로 하고 『여지승람』에서는 이것을 「二島在縣正東海中」으로 고친 것이다. 만약 울릉도 외에 「우산도」의 존재가 확인된 결과로 해서 『고려사지리지』보다 뒤에 편찬된 이 양서가 이도설을 채택했다고 한다면 그 주기에서 우산도에 대해서도 어떤 설명이 있어야 마땅한 것이지만 양서 모두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기술도 없다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대로이다. 이를 보아도, 이 양서의 前記의 수정은 이도설을 모두에 내세운 것에 따른 필연의 결과로 결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⁶⁾

『고려사지리지』·『세종실록지리지』·『신증동국여지승람』 삼서 모두가 동해의 이도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그 내용이 울릉도에 관한 것일 뿐 독도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삼서가 전하는 이도설을 부정한다. 그러면서 이도설이 존재하는 것은 모두에 기록한 것에 따른 필연일 뿐이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아무래도 성립할 수 없다. 모두에 기재한 것 자체가 확실한 근거라 할 수 있다. 이도설을 모두에 제시했기 때문에 주기가 이도설을 취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삼서의 모두는 『고려사지리지』가 「울릉도」라고 일도만 기록하고, 「일운」으로 「于山·武陵本二島」라고 이도설을 소개했다. 그에 반해 『세종실록지리지』는 「于山·武陵二島」라고 이도설을, 『신증동국여지승람』은 「于山島·鬱陵島」라고 이도를 기록하여, 적어도 『세종실록지리지』와 『신

6) 前掲書3, P103.

『증동국여지승람』은 이도설을 정설로 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사지리지』 역시 모두에서 울릉도만을 소개하고 있으나 「일운」에서 이도설을 취하고 있어, 동해의 이도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삼서가 이도설을 말하고 있는데도 새로운 근거를 요구하는 것은 기록의 본질을 피하는 내용의 왜곡이다.

기록이 분명한 동해의 이도를 주기가 울릉도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부정한다 해도 조선의 독도인식이 완전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고려사지리지』와 『세종실록지리지』가 전하는 「二島相距不遠」을 조선의 이도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와카미는 양서의 「이도」를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세 봉우리가 곧게 솟아 하늘에 닿았는데 남쪽 봉우리가 약간 낮다. 바람이 부는 청명한 날 에는 봉우리 꼭대기의 수목과 산 밑의 모래톱을 역력히 볼 수 있으며 순풍이면 이틀에 갈 수 있다」와 대응시켜 「이도」를 「울릉도와 독도」의 관계가 아닌 「울릉도와 본토」의 관계로 처리했다

(2)相距不遠의 二島

「상거부원」이 우산과 무릉의 관계가 아니라 울릉도와 본토와의 관계의 표현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고려사지리지』의 「一云于山武陵本二島」가 삽입구라며, 모두의 「鬱陵島」를 「相居不遠風日清明則可望見」에 직결시켜 해석했다. 즉 「鬱陵島, 相居不遠風日清明則可望見」으로 직결하고, 울릉도와 본토가 서로 멀지 않아 바람이 부는 날에 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 전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鬱陵島 在嶺正東海中, 新羅時稱于山國, 一云武陵, 一云羽陵, 地方百里, 智証王十二年來降, 太祖十三年, 其島人使白吉土豆獻方物, 毅宗十一年, 王聞鬱陵, 地廣土肥, 旧有州縣, 可以居民, 遣溟州道監倉金柔立, 往視, 柔立回奏云, 島中有大山, 從山頂向東行, 至海, 一万余步, 向西行, 一万三千余步, 向南行, 一万五千余步, 向北行, 八千余步, 有村落基址七所, 有石仏·鐵鐘·石塔·多生紫胡·藁本·石南草, 然多岩石, 民不可居, 遂寢其議, 一云于山·武陵本二島, 相距居不遠, 風日清明, 則可望見,

울릉도를 분주로 설명한 것으로, 현의 정동 해중에 있는 울릉도를 신라가 우산국, 혹은 무릉·우릉으로 칭했다는 유래와 역사적 지리적 사실의 설명에 이어, 고려시대의 통치사실과 지리적 특성과 산물을 약술했다. 그리고 따로 전하는 이야기 「일운, 우산 무릉은 본래 이도로, 두 섬이 떨어짐이 멀지 않아,

바람이 부는 맑은 날에 바라볼 수 있다」라는 주장을 소개했다. 신라 시대에는 우산국이라 칭했으나 무릉 우릉으로도 칭했다는 「新羅時，稱于山國，一云武陵，一云羽陵」에 대응하는 것으로, 신라시대와 마찬가지로, 고려시대에도 다양한 도명이 존재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당대의 사회적 인식을 「一云」으로 해서 소개한 것이다. 바람이 부는 맑은 날에는 보인다는 동해의 이도를 인식하고 있는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다.

기록의 「일운」·「일설」·「일서」는 본 기록과 다른 주장을 소개하는 것으로, 참고한 자료의 취사선택의 문제였다. 채택한 자료로 편찬하면서 소개할 필요가 있어 병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문과 「일운」은 진위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 『고려사지리지』의 편자 역시,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동해의 이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一云，于山·武陵，本二島，相距不遠，風日清明，則可望見」이라고 소개한 것이다.

이것은 「一云，于山·武陵，本二島」와 「相距不遠，風日清明，則可望見」으로 분리하여 「혹은 말하기를 우산 무릉은 본래 두 섬이다」와 「서로의 거리가 멀지 않아서 바람 부는 맑은 날에는 바라볼 수 있다」로 나누어 따로 해석하기보다는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이 「于山·武陵」이나 「二島」가 「相距」와 잘 대응하여 해석이 자연스럽다.

그렇지 않고 「一云，于山·武陵，本二島」를 생략하고 「相距不遠，風日清明，則可望見」을 모두의 「울릉도」에 직결하여 「울릉도，서로 떨어짐이 멀지 않아，바람이 부는 맑은 날에는 바라볼 수 있다」로 하면 울릉도와 상거하는 대상이 없어 이상하다. 울릉도의 대상을 기록에 없는 본토로 상정하는 것은 기록의 윤색이다. 또 본토는 二島의 「島」의 의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가와카미는 「우산·무릉」과 「이도」, 「이도」와 「상거」의 상응을 무시하고 「相居不遠，風日清明，則可望見」을 모두의 「鬱陵島」에 직결시키고 「상거」를 「울릉도와 본토」의 관계로 보았다. 그리고 방증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이 『세종실록지리지』의 「二島相去不遠」대신에 「三峯巖巖撐空南峯稍卑 風日清明則峯頭樹木 及山根沙渚歷歷可見 風便則二日可到」로 기록한 것을 근거로 든다. 또 이곳의 「風便則二日可到」가 『삼국유사』의 「便風二日程 有亏陵島」와 같다는 것도 방증으로 삼는다. 본토에서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곳이 울릉도이고, 『신증동국여지승람』이 이들의 거리를 언급했으므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于山島 蔚陵島 一云武陵，一云羽陵，二島，在縣正東海中」의 「이도」는 물론 『고려사지리지』의 「一云，于山·武陵，本二島」, 『세종실록지리지』의 「于山·武陵二島，在縣正東海中」의 「이도」는 무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기록이 시대와 편자를 달리해도 동질적이라는 一系的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주장으로, 시대와 편자가 달라도 내용이 같아야 하고, 차이를 오류로 보는 사고다. 그런 인식이기 때문에 「여지승람은 실록지리지의 애매한 표현을, 다시 고려사지리지 본래의 의미로 고친 것」이라고 기록간의 차이를 정리할 수 있었다. 『고려사지리지』를 기준으로 삼고 그것과 다른 내용은 오류로 본 것이다. 그래도 삼서가 이도설과 일도설을 병기하고 동해에 두 섬이 존재하여 이도설이 부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자 가와카미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편찬 당시까지 수회에 걸쳐 울릉도에 사신을 파견했기 때문에, 만일 우산도가 울릉도 가까이 실재하고 있었다면 당시로서는 『고려사지리지』나 『실록지리지』보다도 이에 관하여 한층 확실한 지식과 견문을 얻었기 마련임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일도설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그 것 자체가 이미 2도설의 불확실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일설이 있는 것을 이도설에 대한 불확실성의 반영으로 보았다.⁷⁾

이도설의 존재를 일도설에 대한 의문으로 보고, 그런 의문이 있는 것 자체가 이도설의 불확실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일설」을 일도설에 대한 의문으로도 이도설에 대한 불확실성으로도 해석했다. 양설에 의문을 표하는 방법으로 실존하는 이도 인식을 부정하려 했으나, 그 해석이 옳다 해도 인정될 수 없는 논리이다. 일도설의 존재에 의문을 표하는 것이 이도설의 불확실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또 그렇다 해도 동해에 이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도설을 부정하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고려사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가 일도설과 이도설을, 『세종실록지리지』가 이도설을 취했다는 것은 양설이 병존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진부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일도설을 취한다 해서 실존하는 이도가 변하는 것도 아닌 이상 이도설은 동해의 지리적 상황을 인식한 당대의 사고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인식을 구체화 한 것이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와 「강원도」 지도다. 그곳에는 위치와 크기가 다르기는 하나 우산도와 울릉도가 표시되어 있다. 가와카미는 그 오류가 단순한 제도상의 오류가 아니라, 이도설이 관념적인 것으로, 실제의 지리적인 지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⁸⁾ 오류에 대한 지적은 타당하다. 그렇다 해서 지도에 나타난 조선의 인식을 부정할 수는 없다. 오류는 실수일 뿐이다. 실수를 범했다 해서 동해의 이도가 일도로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7) 前掲書3, P104.

8) 前掲書3, P114.

삼서의 주기에 독도에 해당되는 섬의 기록이 없다는 지적은 사실인 듯하나, 그것이 조선의 독도인식을 부정하는 근거일 수는 없다. 『삼국사기』의 우산국이 울릉도와 주변의 도서를 통합한 영토를 전제로 하는 이상, 우산국의 영토에 독도에 해당하는 도서도 포함되었기 마련이고, 그 우산국을 고려와 조선 왕조가 계승하여 통치한 것이다. 그럼에도 독도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없는 것은 기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고려와 조선왕조는 산물과 거주민의 상황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물과 거주민에 대한 내용 중심의 기록을 했다. 산물이 없는 무인도를 특기할 필요가 없어,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의 기록에 그친 것이다. 그런 사고에 의한 기록이 「于山鬱陵二島在縣正東海中」, 「一云于山鬱陵本二島」, 「二島在縣正東海中」 등이었다.

3, 안용복의 부정

(1) 기록의 기본인식

신라가 512년 이전부터 우산국을 인식한 것에 비해, 일본은 11세기에야 인식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이국으로서의 인식이었다.⁹⁾ 그럼에도 일본은 16세기의 침략과 17세기의 불법어업을 근거로 울릉도에 대한 정통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1693년에 울릉도에서 안용복을 납치했다는 돛토리한의 보고를 받은 막부는 쓰시마한에 송환업무를 명한 후,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결정을 했다.

죽도는 원래 잘 알지 못합니다. 호키에서 건너가 어렵게 된 유래를 마쓰타 이라호키노카미에게 물었더니, 이나바와 호키에 부속한 것도 아닙니다(중략) 조선의 섬을 일본이 취한 일도 없고 일본인이 거주하지 않는다. 거리를 물었더니 호키에서는 160리 정도이고 조선에는 40리 정도라 한다. 그렇다면 조선국의 울릉도가 아닌가. 원래 일본인이 살고 있거나 우리가 취한 섬이라면 지금 새삼스럽게 돌려주기 어려우나 그런 증거도 없으니 우리가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 어떠할까.¹⁰⁾

9) 『大日本史』卷234, 列傳5, 高麗.

10) 竹嶋元しかと不相知事二候、伯耆より渡り漁いたし来候由ニ付松平伯耆守殿江相尋候処、因幡 伯耆江附属与申ニ而茂無之候、(중략)朝鮮之嶋を日本江取候与申ニ而も無之、日本人居住不仕候、道程之儀相尋候得者伯耆よりハ百六拾里程有之、朝鮮江者四拾里程有之儀ニ候、然者朝鮮国之蔚陵嶋ニ而も可有之候哉、夫共ニ日本人居住仕候か此方江取候嶋ニ候ハ

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불만을 느낀 쓰시마한이 무력에 의한 해결을 제의하기도 했으나, 막부는 그것을 일축하고, 1696년 1월 28일에 향후 죽도에 건너가는 것을 금한다는 명을 내렸다. 그 명에는 도중에 있는 독도(송도)도 포함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일본은 갑자기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조선은 독도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한다.

조선이 해금정책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도인 독도를 인식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하나,¹¹⁾ 그것은 고대의 해양활동을 고려하지 않는 주장이다. 6세기의 우산국은 침략해온 신라를 격퇴했고, 신라가 우산국 정벌까지 계획 했던 것과 같은 항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울릉도와 독도를 분리시키는 주장은 막부가 내린 도해금지령에서 독도를 제외시키고, 조선인의 독도인식을 부정하여 그곳을 무주지로 위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용복의 독도인식을 전하는 기록도 부정해야 했다. 가와카미가 안용복이 진술한 내용은 물론 그것을 기록한 사서들까지 부정하는 이유가 그곳에 있다.

그가 인용한 기록은 『통함일람』 · 『조선통교대기』 · 『大谷家文書』 · 『控帳』 · 『因府年表』 등으로, 안용복을 납치한 어민의 진술과 그것을 근거로 하는 돛토리의 보고서, 막부의 지시 등을 내용으로 한다. 조선의 기록으로는 『숙종실록』 『증보문헌비고』 등이 안용복이 진술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일본의 기록과 달리 울릉도와 자산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는 관백의 서계를 받았으나 쓰시마한에 탈취 당했다는 내용을 전한다.¹²⁾

가와카미는 안용복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조선의 기록까지 부정하면서, 확실한 증거로 드는 것은, 관백의 서계를 받았다는 것과 도해 도중에 왜인을 만났다는 내용의 진술이다. 그러나 그것은 편의적으로 인용한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원인으로 하는 오판이다. 안용복의 일본에서의 행정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음에도 가와카미는 의문조차 표하지 않았다.

돛토리한은 납치한 안용복의 처리방법을 막부에 문의했으나, 송환시키라는 막부의 명을 받고 난 후에는 안용복과 박어둔을 가마에 태우고 의사와 요리사를 포함한 90여명에게 수행하게 했고, 3년 후에, 쓰시마한의 비리를 소송하겠다고 다시 도해했을 때는, 일행 모두에게 2대의 가마와 9필의 말을 내어 영접

、今更遣しかたき事ニ候得共、左様之証拠等も無之候間此方より構不申候様ニ被成如何可有之候哉(『竹島紀事』元祿九年丁月廿八日)、

11) 前掲書3, P277.

12) 以蔚陵子山等島定以朝鮮地界之有關白書契(中略) 以大馬島主奪取書契(『肅宗實錄』卷30, 丙子二十二年九月戊寅), 太守遂稟關白作書契授之言 蔚陵非日本界行至長崎島島主即馬島之党也 求見書契出示之奪不還(『增補文獻備考』卷31, 輿地考19).

했다. 범죄자에 대한 대우라고 생각할 수 없는 후대였다. 그럼에도 그 원인을 규명하려는 노력은 물론 의문조차 표하지 않았는데, 그것이야 말로 의문이다. 이런 돗토리한의 이중적인 태도의 의미를 규명하지 않고 안용복의 일본에서의 행정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다.

이것은 안용복의 진술한 내용을 인정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할 문제다. 안용복이 에도에서 관백의 서계를 받았다고 진술한 내용은 조선의 기록만이 아니라 일본의 기록에도 있다. 더군다나 그것은 납치당했던 안용복과 납치했던 오야케가 직범 진술하고 기록한 것이다. 그런 기록을 접하고도 그 의미를 논하지 않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가와카미는 그 내용을 은폐하려는 노력까지 했다.

(2) 울릉도와 자산도의 일본인

가와카미는 일본의 기록에 없다는 것을 근거로 서계를 받았다는 사실, 1696년 1월에 도해를 금했으므로 그 해에 독도에서 일본인을 만났다는 사실, 납치당하기 전의 안용복의 자산도 인식 등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안용복은 물론, 그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조선의 기록까지 부정했다.¹³⁾ 그러나 사실은 다르다. 서계는 존재했고, 죽도도해 금지령과 관계없이 일본인은 도해하고 있었으며, 안용복만을 비롯한 많은 조선인들도 자산도를 인식하고 있었다.

가와카미는 1692년과 1695에는 조선인이 있어 그냥 돌아왔고, 1693년에는 조선인을 납치하여 돌아왔으며, 1694년에는 난풍으로 착안하지 못했으며, 1696년에는 도해금지령으로 도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한다.¹⁴⁾ 그러나 이것이 기록에 의한다 해도 인정할 수 없는 주장이다. 오야·무라카와 양가는 죽도 도해로 부를 축적하고 장군을 알현할 정도로, 도해가 양가의 영고성쇠를 좌우하고 있었다. 그것을 5년간이나 금한다는 경우는 상정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떤 형태로든 도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만일 양가의 도해가 없었다면 그곳을 보물섬으로 아는 산인(山蔭) 지역의 다른 세력이 도해했기 마련이다.

오야케의 도해를 보면, 1692년 2월 11일에 요나고(米子)를 출발하여 3월 26일 아침에 죽도에 도착했다. 44일만의 도착이었다. 그리고 3월 27일 16시에 죽도를 출발하여 도중에 3일 정도 머물다 4월 5일에 요나고에 도착했다. 5일 정도 걸렸다. 1693년에는 2월15일에 요나고를 떠나 4월 17일에 죽도에

13) 前掲書3, P170.

14) 前掲書3, P168. 田村青三朗(『島根県竹島の新研究』, 1965, 島根県, P8).

도착했다. 61일 걸렸다. 귀로는 18일에 죽도를 떠나 27일에 요나고로 귀환했다. 중간에 정박한 날을 제외하면 역시 5일 정도 걸렸다.

이처럼 5일 정도로 가능한 귀로에 비해 도해에 44일과 61일이 걸렸다는 것은, 도해에 그만큼 많은 준비가 필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금을 대출받고,¹⁵⁾ 총포로 무장까지 하고 간 죽도에서,¹⁶⁾ 상황이 나쁘다 해서 포기하고 돌아온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

도해금지령 때문에 출어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성립하기 어렵다. 1월 28일에 도해금지령이 내린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현지에 전해진 것은 8월 이후였고, 조선에 알려진 것은 10월이었다. 쓰시마한은 금지령을 전달받는 자리에서 가을에나 조선에 통지하겠다고 뚝토리한에게는 자신들보다 먼저 공포하지 말 것을 요구했었다.¹⁷⁾ 뚝토리한 에도 번저의 기록 『在府日記』 1월 28일조에 도해금지령의 봉서를 받은 기록이 있으나,¹⁸⁾ 그것이 당사자에 전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양가에 언제 전달되었는지는 불명이나, 빨라야 2월 상순이나 중순으로, ¹⁹⁾ 확실한 전달은 번주가 귀국한 8월 1일 이후로 보아야 한다.²⁰⁾

1692년과 1693년의 출어가 2월 11일과 2월 15일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쓰시마한의 제의를 무시하고 제대로 전달했다 해도 1월 28일의 금지령은 출어 후에 도착했을 가능성이 크다. 긴급한 연락은 7일 걸리는 비각을 이용하기 때문에, 금지령에 따라 출어를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쓰시마한이 금지령의 공포를 연기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뚝토리한이 서둘러 전할 이유가 없어, 1696년의 출어는 예정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래 오야·무라카와 양가의 죽도도해는 막부의 비호를 받는 배타적 이권이였다. 따라서 양가의 도해금지령은 죽도에서의 독점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그때

15) 米子村川市兵衛竹嶋渡海ニ付、例年鮑代内借シ貳貫目御借シ被成候処、当年は朝鮮人嶋ニ罷在、獵無之ニ付て、戊年市兵衛渡海番迄御延被遣、其節相談可有之事(『控帳』).

16) 翌八年渡海船中鐵砲五挺槍太刀蒙御免御威光ヲ以致渡海所去年ヨリ亦唐人大勢竹島雖有參去申(『竹島渡海由來記拔書控』本文17).

17) 先頃如申上候譯官渡海之刻彌口上に而可申渡候哉之事。松平伯耆守江以御奉書被仰付候由被仰渡候、右如申上候譯官江申渡候様に被思召候はは、私方より譯官江申渡候與之遂御案内以後伯耆守江被仰付候得かしと奉存候、若渡海被差留候段流布仕候而はは彼國にも可傳承哉與奉存候、承候後申渡候而者如何敷奉存候故申上候(『竹島紀事』6年1月28日).

18) 鳥取藩政史料 『在府日記』(鳥取縣立博物館)元祿9年正月28日조에 의하면 이날, 鳥取藩江戶留守居吉田平馬가 老中 戶田山城守에게 불려가 竹島渡海禁令의 奉書를 받았다(池內敏, P396).

19) 何時大谷・村川の両氏に伝達せられたか不明であるが、二月上旬か遅くとも中旬には米子に達したものであろう(田村清三朗 『島根県竹島の新研究』,1965,島根県,P18).

20) 田村清三朗 『島根県竹島の新研究』(1965,島根県),P31.

까지 도해를 자제하고 있던 다른 세력들이 밀항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일이었다. 산인 지역에는 쇄국정책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해하는 세력이 항시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은 『多門院日記』의 「호키에서 弥七가 왔다. 이소타키인삼 3량과 못을 조금 가지고 왔다」와 같은 기록으로 알 수 있다. 이곳의 「이소타키인삼」은 이소타케시마, 즉 죽도에서 수입한 인삼으로, 당시 죽도 중심의 밀무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당대의 寺社 집단의 정보망을 전국적인 것으로 상품을 거래하고 있었는데, 산인 일대에서 상업하는 山崎屋의 又四郎나 腹卷屋의 藤二郎 등은 이소타케시마에 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었다.²¹⁾ 16세기 말의 磯竹弥左衛門도 군수물자를 취급하는 죽도교역에 종사하다 처형되는 상황이었다.²²⁾

원래 오키 해역은 외부의 침탈이 많은 곳이었다. 방비가 허술하면 이웃 단슈(但州)나 자쿠슈(若州)의 도적이 약탈 방화를 자행했다.²³⁾ 그런 상황에서 보물섬으로 알려진 죽도의 오야·무라카와케의 도해가 금지된 사실이 알려졌다면, 여타 세력들이 방치할 까닭이 없다.

뚝뚝리한 이외 지역에서의 도해는 쓰시마한과 왜관이 교환한 서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안용복의 송환업무를 명받은 쓰시마한은 동해의 지리적 상황을 재검할 필요가 있어, 왜관의 조선어 통사 나카야마 카베에(中山加兵衛)에게 울릉도에 관한 질문을 했다. 그러자 나카야마는

당년에도 그 섬으로 부산포에서 상매선 3척이 건너간다는 말을 듣고, 한비차구라는 부산의 조선인을 태워 섬의 상황은 물론, 해로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조사할 것을 명하여, 상기한 배에 딸려 보냈습니다.²⁴⁾

라는 보고를 했다. 1696년 6월 13일부의 답신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안용복 일행이 울릉도에 있었다는 3척과는 다른 3척의 배가 건넌 것이 된다. 안용복 일행과 같이 있었다는 배의 1척이 전라도의 배이고 다른 1척은 경상도의 배였으므로,²⁵⁾ 보고서가 말한 부산의 상매선 3척과는 다른 배였음에 틀림없다. 이

21) 大西俊輝 저, 權五曄·權靜 역 『獨島』(제이앤씨, 2004, P159).

22) 『通交一覽』 129 조선국부. 大西俊輝 전게서, P166.

23) もう隠岐は、襲い来る海賊を、自力で防ぐことはできなくなっていた。但州(但馬國)や若州(若狹國)から盜賊が来て、村々を頻りに襲い、掠奪した。堂宇を焼却し、貨財を掠奪、婦女を犯した。[村人はただ逃げるだけ] 駿足の者は潜かに山林に匿れ、また病人や老人は溝や窪みに倒れ、隠れ臥した。佐々木氏が累代に亘り築き上げた一族の繁榮は、こうして一切が焦土となり消滅してしまった(『隠州視聽合紀』 卷一)。

24) 当年も彼嶋江為持釜山浦より商売船三艘罷越候由承届候付ハンピチャグ与申釜山之唐人相加嶋之様子諸事具見届海路ニ至迄入念候様ニ申付態右之者共ニ相加差越候帰着次第具承追而可申上候先(『竹島紀事』 元祿六年八五月廿二日)。

상매선의 소속은 불명이나, 왜관의 통사 나카야마가 필요에 따라 한비차구를 승선시킨 것을 보면 왜관의 영향을 받는 배라는 것은 알 수 있다. 이처럼 왜관의 영향을 받는 배 3척이 금년에도 도해했다는 것은 그 도해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 왜관의 영향을 받는 배의 도해는 울릉도 도해를 뜻도 리한의 어민이 독점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 독점과 무관하게 왜관이나 대마도와 같은 다른 곳에서도 조선과 막부의 허가 없이 도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막부가 도해를 금했기 때문에, 안용복이 울릉도와 자산도에서 일본인을 만났다는 진술은 허구이고, 것처럼 허구에 능한 안용복이기 때문에, 그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조선의 기록을 신뢰할 수 없다며 안용복과 조선의 기록을 부정하는 일본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3) 안용복의 송도인식

① 조선기록의 松島

『속중실록』이나 『증보문헌비고』가 전하는 안용복에 대한 기록을, 가와카미는 일본의 기록에 없다는 것과 안용복이 범법자라는 것을 근거로, 기록이 범법자의 공술을 무비판적으로 취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부정했다. 안용복이 울릉도와 독도에서 만난 일본인에게 「울릉도는 본래 우리 땅인데, 왜인이 어찌 침범 했는가 (중략) 송도는 자산도로 그것도 우리나라 땅」 이다라고 말하고,²⁶⁾ 다음날 송도에서 만난 그들을 쫓아냈다는 진술을 했는데, 그것이 허구라는 것이다.

가와카미는 안용복이 송도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증거로 「새벽에 송도라는 곳에 서둘러 도착했다」 라는 『因府歷年大雜集』의 或說을 들었다.²⁷⁾ 이도설을 말하는 조선 기록의 「일설」 과 「일운」 에는 의미를 두지 않는 그가 「或家之日記」 를 근거로 안용복의 송도인식을 부정한 것이다. 그러나 그 혹설이 사실이라 해도, 안용복이 송도를 인식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울릉도와 독도를 무루구세무와 부른세미로 호칭하던 시대에 안용복이 무루구세무를 거명하고,

25) 類船之儀壹艘者全羅道之内シユンデン与申所之船ニ而人数十七人乗組同壹艘ハ慶尚道之内カトク与申所之船人数十六人乗組貳艘共ニ四月五日彼嶋ニ參候(『竹島紀事』元祿六年九月四日).

26) 鬱陵島本我境倭人何敢越境侵犯(중략)松島即子山島此亦我國地(『肅宗實錄』33年丙子9月戊寅).

27) 或家之日記に(中略)曉松島と申候へ馳着候(川上健三 前掲書3, P170).

울릉도에서 우산도를 보았다고 진술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안용복은 장기에서 울릉도를 무루구세무로 부른다는 진술을 했고, 대마도에서는 납치 당하기 전에 우산도를 보았다며 다음처럼 진술했다.

이번 건너간 섬(울릉도-필자)의 이름은 모릅니다. 이번에 건너간 섬의 북동쪽에 큰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두류할 때 겨우 두 번 보았습니다. 그 섬을 아는 자가 말하기를 우산도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결국 간 일은 없습니다. 대개의 거리는 하루 남짓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²⁸⁾

안용복은 3월 27일에 도해하여 납치당하는 4월 18일까지 울릉도에 체재하고 있었다. 22일에 걸쳐 머문 것이다. 그 안용복이 겨우 두 번 본 동향의 섬이라면 독도를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 있다. 또 일행이 그것이 우산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북동이라는 방향의 문제가 있기는 하나, 그것은 경상도·전라도 어민들의 습관화된 방향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안용복 이외의 어민이 울릉도 동북쪽에 있는 섬이 우산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많은 조선인이 우산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일본이 조선의 해금정책을 근거로 1692년까지 조선인의 도해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일본의 기록과도 다른 주장이다. 1692년에 울릉도에서 만난 조선인이 「이 섬 북쪽에 섬이 있어, 삼 년에 한 번 씩 군주의 명령으로 전복을 채취하러 왔다」²⁹⁾라고 말한 것은, 조선인의 정기적인 도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해금정책 이후에도 도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692년의 일행에 안용복도 포함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들도 어디선가 정보를 얻어 도해했을 것이다. 1693년의 雷憲이 안용복의 정보를 믿고 도해한 것처럼 안용복도 선 경험자한테 정보를 얻었을 것이고, 다른 조선인도 그러했을 것이다. 이는 해금정책 이후에도 그 정책과 무관하게 도해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 경험이 지속적으로 전승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용복은 1693년의 도해에 10인이 승선했으나 한 사람이 도중에 내렸다는 사실과³⁰⁾ 전라도의 배에는 17인이, 부산의 배에는 15인이 타고 있었다는 진

28) 質人爰許逗留之内相尋候節申候ハ今度參候嶋之名者不存候、今度參候嶋より北東ニ当り大
 成嶋有之候、彼地逗留之内漸ニ度見江申候、彼嶋を存たるもの申候ハ于山嶋与申候通申聞
 候、終ニ參りたる事ハ無之候、大方路法一日路余も可有之哉与相見江申候由申候、鬱陵嶋与申
 嶋之儀者曾而不存候由申候、乍然質人之申分虚実難斗候得共為御心得申進候其元ニ而能御聞可
 被成候(『竹島紀事』元祿六年十二月五日)

29) 此島ヨリ北ニ当り島有之、三年ニ一度宛国主之用ニテ鮑取ニ參候(『大谷家文書』川上健
 三上掲書、P1 45)。

30) 船老艘二十人乗組寧海与申所迄罷越候処右拾人之内老人ハ相煩申ニ付寧海江残置九人乗組
 右之竹嶋江罷越申候、拾人之内九人ハ蔚山之者同老人ハ釜山浦之者ニ而御座候御事(『竹島紀

술을 했다. 1696년의 도해에는 부산·울산·전라도 사람들이 동승하고 있어, 도해가 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일본의 산인 지역에 표류한 조선인에는 경상도와 전라도 사람이 많았으나 전국 연안의 어민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로 입증된다.³¹⁾ 이처럼 조선의 각지에서 도해하고 표류 당하는 상황에서 조선이 독도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현실을 떠난 관념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② 무루구세무와 부룬세미

1696년에 안용복 일행은 범선을 타고 일본으로 도해했다.³²⁾ 이는 금령을 어긴 처벌과 위협을 각오한 항해, 모험적인 항해였다. 그런 항해를 감행하는 자들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자산도를 인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³³⁾ 안용복이 오키에서 『朝鮮八道之圖』를 보이며 동래부가 관할하는 울릉도를 죽도라 하고, 그 도중에 있는 송도가 자산이라며, 송도의 이명인 小于山까지 거론한 것은 일반화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³⁴⁾

자산도의 일명으로 소개한 소우산은 「작은 우산도」를 의미하는 「小于山」으로 보아 무방하다. 신라 이래 울릉도와 독도의 이름은 시대에 따라 다양하여 그것에 대한 언급은 피하나, 울릉도의 도명으로도 사용되는 우산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작다는 의미로 「소우산」을 부기한 것이다. 안용복의 도해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알 수 있는 도명의 소개였다.

안용복은 「소우산」만이 아니라 울릉도의 이명 「무루구세무」도 소개했다. 그는 쓰시마에서 「우리들이 전복을 따러 간 섬은 조선국에서는 무루구세무 라고 합니다. 일본의 죽도라고 말하는 것은 이번에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가와카미는 그것을

事』, 元祿6년, 5월13일).

31) 池内敏 「近世日朝間の漂流民」 『近世日本と朝鮮漂流民』 (塩川書店, 1998, P11).

32) 朝鮮舟老艘長上口三丈下口貳丈幅中ニ而上口壹丈貳尺深サ四尺貳寸但八拾石程積可申候樁式本帆式ツ楫壹羽櫓五挺蓬木綿之はた式ツ艫ニ立申候(『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 本文1).

33) 川上健三은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으나, 그의 계산 방식에 의해도, 해발 120미터의 곳이나 30km를 나가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内藤正重金炳烈 『竹島獨島』, 岩波書店, 2007, P127).

34) 朝鮮國の江原道の東萊府の管轄内に鬱陵嶋という島がある。これを【日本の側で】竹ノ嶋というのだという。(中略) 松嶋ハ右同道之内ト申嶋御座候是ヲ松嶋と申由(『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

울릉도가 무루구세무, 즉 무릉도(Murung sem의 g가 강하게 발음되어 무룬세 무라고 들린 것으로 생각된다. 무룬은 武陵의 음독, 세무는 섬의 훈독)에 해당 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본에서 말하는 「죽도」에 해당 한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았다. 하물며 「송도」에 대해서는 일본인과의 접촉 으로 비로소 지식을 얻은 것은 의심이 없다.³⁵⁾

라고, 안용복이 무루구세무가 울릉도라는 것을 알았던 몰랐던 그것과 일본 이 말하는 죽도의 명확한 관계를 알지 못했을 것이라며, 안용복의 동해의 지 리적 정보에 의문을 표하고, 그의 자산도 인식이 일본에 납치된 경험에 의한 것이라 했다. 죽도를 모르는 그가 송도를 알 리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루구 세무와 죽도와의 관계를 몰랐다 해도, 그것은 정확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것이 지 울릉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므로 무루구세무를 아는 안용복은 부룬세미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가와카미는 안용복이 7월 1일에 長崎에서 진술한

常ニ朝鮮国にてハムルグセム与申候日本之内竹嶋与申所之由ハ此度承申候御事
보통 조선국에서는 무루구세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죽도라고 말한다는 것 은 이번엔 들었습니다.

를 조선국에서 무루구세무라고 말하는 울릉도가 「일본에서 말하는 죽도라는 것을 명확히 몰랐다」는 것으로 해석했는데, 이것은 안용복이 9월 4일에 대마 도에서 진술한

彼嶋之名を朝鮮ニ而ムルグセム与申候 彼嶋之儀日本之地ニ而御座候も朝鮮之地ニ
而御座候も一円存不申候日本ニ罷渡候而日本之地ニ而御座候由初而承申候
그 섬의 이름을 조선에서 무루구세무라고 합니다. 그 섬이 일본의 땅이라는 것도 조선의 땅이라는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일본에 와서 일본의 땅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라고 그 소속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과 같이 생각하면 「日本之内竹嶋」는 「일본에서는 죽도라고 말한다」 보다는 「일본의 죽도라는 것」으로 해석하 여, 안용복이 무루구세무를 조선에서는 울릉도로, 일본에서는 죽도로 말한다는 것은 알았으나, 그것이 일본 소속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들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무루구세무와 죽도의 관계를 정확히 몰랐다는 사실을 근거로 안용복의 독도인식은 부정하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당시에 동해에는 무루구세무만이 아니라 부룬세미로 불리는 섬도 존재하여

35) 川上健三 前掲書, P170.

쓰시마한이 혼동할 정도였다. 그 도명을 규명하는 것이, 안용복의 송환업무를 명받은 쓰시마한의 선결문제라고 생각했는지, 부산의 왜관에 다음과 같이 조회했다.

죽도를 조선에서는 부룬세미라고 한다는 것을 들었다. 죽도라고 쓰고 조선음으로 부룬세미라고 하는가. 부룬세미는 어떻게 쓰는가. 울릉도라는 섬이 있다. 이것을 일반인들이 부룬세미라고 말하는 것 아닌가. 일본에서는 울릉도를 이소타케라고 한다. 울릉도와 부룬세미는 다른 섬인가. 부룬세미를 일본인은 죽도라고 한다는 말은 누가 한 것인가.³⁶⁾

5월 13일부의 명을 받은 中山加兵衛는 조선인 등에게 물어, 6월 10일부의 답신으로³⁷⁾

부룬세미는 섬을 잘못 안 것입니다. 자세히 들은 바에 의하면 우루친토우라고 하는 섬입니다. 부룬세미는 우루친토우에서 북동쪽으로 희미하게 보인다고 들었습니다.³⁸⁾

라고, 죽도에 해당하는 것은 부룬세미가 아니라 우루친토우이며, 우루친토우의 북동쪽에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부룬세미라고, 부룬세미와 우루친토우의 관계를 설명했다. 이는 中山 가 한비차구를 비롯한 조선인들한테 모은 정보에 근거하는 답신으로, 한비차구의 의견도 포함되었기 마련이다. 나카야마는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부산에서 출발하는 상매선 3척에 한바차구를 태워 울릉도의 상황은 물론 해로까지 조사하게 했다.

따라서 한비차구는 부룬세미와 울친토우가 다른 섬이라는 것, 울릉도의 별명이 무루구세 무이고 자산도의 별명이 부룬세미로, 우루친토우 북동에 있는 것이 부룬세미라는 사실을 알고 도해한 셈이다. 것처럼 한비차구가 인지한 부룬세미라면 여타 조선인도 인지했기 마련이다. 이렇게 무루구세무와 부룬세미로 일반화된 울릉도와 독도의 인식을, 안용복에 한해서 부정하는 것은 성

36)竹嶋之儀朝鮮ニ而ハブルンセミト申候由被申越候、竹嶋与書候而朝鮮讀ニブルンセミト申候哉ブルンセミトハ如何様ニ書申候哉、蔚陵嶋与申嶋有之候是を下々之ブルンセミトハ不申候哉、日本ニ而者蔚陵嶋之儀を磯竹と申候蔚陵嶋とブルンセミハ別之嶋ニ而有之候哉ブルンセミを日本人ハ竹嶋と申候与申儀者誰之咄ニ而被承候哉(『竹島紀事』元祿6年5月13日).

37) 当年も彼嶋江為拵釜山浦より商売船三艘罷越候由承届候付ハンピチャグ与申釜山之唐人相加嶋之様子諸事具見届海路ニ至迄入念候様ニ申付態右之者共ニ相加差越候帰着次第具承追而可申上候先の荒増承候通別紙書付差上候(『竹島紀事』元祿6年5月13日).

38)ブルンセミ之儀嶋違ニ而御座候具承届候処ウルチントウト申嶋ニ而御座候、ブルンセミ之儀者ウルチントウト申嶋ニ而御座候、ブルンセミ之儀者ウルチントウトより北東に当かすかに相見申由承候事(『竹島紀事』元祿6年5月13日).

립할 수 없는 주장이다.

기록이 부른세미와 무루구세미가 다른 섬이라는 사실을 명기하고 있음에도 무루구세미와 부른세미를 무릉도의 일본발음이라며 부른세미와 무루구세미를 울릉도로 해석하여, 동해의 일도설을 보강한 것은,³⁹⁾ 『죽도기사』의 「부른세미는 우루친토우 북동에 희미하게 보인다」를 애써 무시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울릉도의 북동쪽에 희미하게 보이는 섬이 부른세미라는 것을 안용복이 울릉도의 북동쪽에 있는 섬을 우산도라고 공술한 것과 같이 생각하면 부른세미가 곧 우산도이다.

(5) 서계의 존재

안용복이 관백의 서계를 받았다는 기록은, 자신을 납치한 사실을 비난하자, 호키슈 태수가 그 사실을 관백에게 품의하여 서계를 만들어 주었다는 『증보동국 문헌비고』와⁴⁰⁾ 관백의 서계를 에도에서 받았으나 쓰시마에서 빼앗겼다는 『숙종실록』에 있다.⁴¹⁾ 유사한 내용이 나 전자가 수령한 장소를 돗토리로 하는 차이가 있다.⁴²⁾ 현재는 전자가 통설이나, 안용복을 납치한 오야케의 기록 『竹島渡海由來記拔書控』는

즉시 돗토리에서 심문한 후에, 당인은 에도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곧 에도에서 조사하고, 조사도 끝나자, 순차적으로 물건을 내려주어, 귀국하게 되었습니다.⁴³⁾

라고 안용복이 에도에 간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伯耆志』도

명이 있어 후지베에가 둘을 거느리고 본부에 갔다. 번사 가노오제키가 수호하여 두 사람을 에도로 불러들였다가 본토로 보냈다.⁴⁴⁾

39) 池内敏 「竹島一件の再検討」(『大君外交と武威』, 名古屋大学出版会, 2006, P281)

40) 鮮人自往朝鮮地何拘爲島主知不可屈解送白耆州(中略)太守遂稟關白作書契授之(『增補東國文獻備考』卷31 輿地考)

41) 漂到玉岐島島主問入來之故渠言頃年吾入來此處以鬱陵子山等處定以朝鮮之界至有關白書契而本國不有定式今又侵犯我境(中略)前日以兩島事受出書契不帝明白而對馬島主奪取書契中間偽造數遣差倭非法橫侵吾將上疏關白歷陳罪狀(『肅宗實錄』22年9月戊寅 25일)

42) 乃反拘執我人轉到江戶幸蒙貴國大君明察事情優加資遣(肅宗20年8月己酉)

43) 右御兩則鳥府表御吟味之上 唐人江府江御引渡 則江戶相濟順々御贈歸ト成ル(『竹島渡海由來記拔書控』本文17).

44) 命有て藤兵衛異人を具して、本府に至る、番士加納氏尾關氏守護たり、異人江戶に召されて本土に送らる。(田村清三朗 『島根県竹島の研究』、平成 8年 3月, P13).

라고 두 사람이 에도에 간 사실을 전하고 있다. 이처럼 조선의 기록은 물론 일본의 기록, 그것도 납치에 관계한 자들의 기록에 있다는 것은 안용복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 한다. 그럼에도 『御在府日記』 『因府年表』 『竹島紀事』 『池田家文書』 등, 시공을 달리 하는 기록에 그 내용이 없다는 것과 막부가 조선인의 울릉도 도해금지를 쓰시마한을 통해 조선에 요구한 것을 근거로 서계의 존재를 부정한다.⁴⁵⁾

안용복의 에도행을 전하는 『竹島渡海由來記拔書控』의 「御贈」은 조사를 마치고 송환하기 전 단계의 일로, 같은 자료의 본문 10에 있는 「別贈」과 대응한다.⁴⁶⁾ 당시의 조선과 일본은 표류민을 송환할 때 물품을 하사했던 것 같다. 따라서 「御贈」은 안용복에게 물품을 하사한 사실의 표현으로, 그 하사품에 서계도 포함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1666년에 오야케의 배가 부산에 표착하자, 조선은 다음과 같이 처리했다.

則朝鮮國所々ニ而御馳走順々ニ送歸シ相成事(中略)尤朝鮮國王ヨリ船頭水主江餞別目錄二通有之
 조선국 곳곳에서 대접을 받고 순조롭게 송환되어 귀국하게 되었다. (중략) 그리고 조선국왕이 선두나 수부에 준 전별목록이 2통 정도 있습니다.⁴⁷⁾

표착한 일본어민을 보호하고 조사하여 송환할 때는 국왕이 물품과 전별목록을 하사했다는 내용이다. 곳곳에서 대접을 했다(所々ニ而御馳走)는 것은 표착민을 이송하며 조사했다는 것으로, 안용복이 요나고-돗토리-에도-나가사키-쓰시마-왜관을 전전한 사실과 대응한다. 순조롭게 송환되어 귀국하게 되었다(順々ニ送歸シ相成事)는 에도에서 조사를 마친 안용복에게 절차에 따라 물건을 주어 귀국하게 했다(相濟順々御贈歸ト成ル)는 것과 대응한다.

그런데 양 기록이 공유하는 「順々」은 「御贈歸」와 「送歸(中略)餞別目錄」으로 이어져, 송환 전에 이루어진 조치였다. 전자는 무엇인가를 「贈」하여 「歸」하게 했다는 것이고, 후자는 「送歸」하는데 「餞別目錄」을 주었다는 것으로 물품의 하사가 당연히 포함된다. 전자와 후자에는 양적인 차는 있지만 표착자를 송환시키기 전의 절차라는 점에서는 동질적이라, 서로 대응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안용복도 에도에서 무엇인가를 받은 것이 된다. 이때 누가 하사했는가가 문제이나, 후자의 경우 「조선국왕」이 하사한 것으로 되어있어, 안용복도 당대의 절대 권력자인 「관백」한테 받은 경우를

45) 川上健三 前掲書 P171.

46) 漂倭処別贈. 頭倭一人白米貳斗白紙貳卷, 從倭二十一名白米各壹斗白紙各壹卷(본문10).

47) 則朝鮮國所々ニ而御馳走 順々ニ送歸シ相成事 具別有之略ス 尤朝鮮國王ヨリ船頭水主江餞別目錄二通有之 于今致所持 則左書頭也(『竹島渡海由來記拔書控』本文12).

상정할 수 있다.

조선국왕의 전별목록의 1통은 선원 22명에게 내린 백미 백지 등을, 다른 1통은 백미·대구어·청주·동과·감장 등을 내용으로 하며 하사한 날짜도 다르다.⁴⁸⁾ 하사가 송환하는 「順々」의 과정에 따로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4, 결론

한국의 독도가 역사지리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은 가와카미의 논리를 근거로 하는데, 그것은 자료를 폭넓게 인용했음에도 인용이 목적적이고 해석이 자의적이라 신뢰할 수 없다. 원래 그는 국익을 우선하는 외무성 출신으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나도 양국의 공유를 거부하고 독점하려 했다. 죽도도해로 가문의 번성을 이룬 오야케의 고문서를 8개월간이나 빌려 조사한 후 「한국 측이 당국의 움직임을 신경을 세우고 있으니 이번에 조사한 것에는 말하지 말라는 주의」까지 준 인물이었다.⁴⁹⁾ 자료를 공유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그는 안용복의 범법적 행위를 근거로 그의 진술을 부정하고, 그것에 근거하는 조선의 기록도 부정한다. 그러면서 일본의 자료는 무조건 신뢰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정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기록이 전하는 안용복의 에도행이 『세종실록』의 그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거론되는 것을 두려워했는지도 모른다. 조선인의 독도인식을 부정해야 한다는 목적이 있어, 일본의 기록이 전하는 무루구세무와 부른세미를 근거로 안용복의 송도인식을 인정하지 못한 것이다.

일본의 국익을 우선하는 집념이 강하여, 『삼국사기』를 비롯하여 『고려사지리지』·『세종실록지』·『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이 울릉도와 독도가 다양하게 호칭되며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하는 내용을 인정할 수 없었다. 『세종실록지』는 이도설을 취하고, 『고려사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주기와 일설(일운)에서 이도설과 일도설을 같이 취하며, 동해의 이도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을 전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팔도총도」에 표기된 울릉도와 우산도는 당대인들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48) 第一通, 漂倭處別贈, 頭倭一人白米貳斗白紙貳卷. 從倭二十一名白米各壹斗 白紙各壹卷. 丙午九月日. 巡察面. 第二通, 漂倭二十二人 白米拾肆石拾斗 大口魚壹百拾尾 清酒貳拾貳瓶. 東貳拾貳塊 生鮮貳拾貳束 甘醬陸斗陸升際. 丙午十月日(『竹島渡海由來記拔書控』本文10).

49) 大谷文子 『大谷家古文書』(1984, 非賣品), P.24.

그럼에도 가와카미는 주기가 울릉도에 한정될 뿐 독도에 해당하는 섬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사실과 「팔도총도」에 표기된 울릉도와 우산국의 위치와 크기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조선의 독도인식을 부정했다. 일부의 오류나 탈락을 근거로 전체를 부정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기록의 오류는 정보 처리의 실수이지 그 사실 전체를 부정하는 조건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 지도에 오류가 있다 하여 울릉도와 우산도가 소명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그것을 근거로 당대인의 인식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주기가 울릉도에 한정된 것도, 그것이 산물과 거주민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산물이 없는 무인도는 기록할 필요 없이 그것의 존재를 기록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조선의 기록이 동해의 이도를 기록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설명에 애매함을 노정하나, 일본의 기록은 이도의 관계를 분명히 정리하여, 조선과 일본 모두가 동해의 이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용복이 울릉도를 무루구세무로 소개하고, 왜관의 조선어 통사가 무루구세무의 동북쪽에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부룬세미라며, 양도의 관계를 정리했다.

즉 조선시대의 울릉도는 죽도 무루구세무 의죽도 등으로 호칭되고, 독도는 자산도 소우산 부룬세미 송도 등으로 호칭되며 존재하고 있었다. 이 같은 당대의 사회적 인식을 기록의 오류를 근거로 부정하는 것은 해석에 의한 왜곡이고, 기록간의 차이를 취사선택하여 해석하는 일은 자료의 조작이라 할 수 있다.

【参考文献】

- 川上健三『竹島の歴史的地理学的研究』(古今書院,1966년,1월. 1696년6월).
『大日本史』卷234, 列伝5, 高麗.
『竹島紀事』(国立公文書官内閣文庫)
『増補文献備考』卷31, 輿地考19).
- 田村青三朗(『島根県竹島の新研究』,1965,島根県).
『控帳』(鳥取県立博物館)
『竹島渡海由来記抜書控』(鳥取県立博物館)
『御在府日記』(鳥取県立博物館)
- 大西俊輝저, 権五嘩·権静역 『独島』(제이앤씨,2004,P159)
『通交一覽』129 朝鮮国部.
『隠州視聽合紀』(동북아역사재단,2007)
『肅宗実録』(慎鏞廈『独島領有権 資料의 探究』 제1권,1998,11)
- 大谷文子『大谷家古文書』(1984, 非売品),
池内敏「近世日朝間の漂流民」『近世日本と朝鮮漂流民』(塩川書店,1998, P11).
『元禄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覚』
池内敏「竹島一件の再検討」(『大君外交と武威』, 名古屋大学出版会, 2006, P281)
『増補東国文献備考』卷31 輿地考

要 旨

韓国の独島支配を否定し、それが歴史地理的に日本の固有領土であるという主張は川上健三の『竹島の歴史地理的研究』に基づくが、同書は韓日両国の資料を幅広く引用しているにも関わらず資料の選択が便宜的であり、解釈が恣意的なので信頼を置けない。

竹島の渡海で繁盛を迎えた大谷家の古文書の情報を得てからは韓国に秘密を守るよう圧力さえもかけようとしたのが川上であった。外務省の官吏であった彼は独島(竹島)問題が韓日両国が尖鋭な問題であることをよく知っていたはずで、それに関する資料が見つければ共有して円満な解決を図るべきであったのに、その程度の余裕をも持っていなかったらしい。

彼は韓国の記録同士の差を根拠に全体を否定し、安龍福については当時の法を犯した点を強調するという方法で彼が陳述した内容ばかりでなく、その陳述を載せた記述まで否定する。それに反して日本側の記録は検証なしに信頼し、それを基準にして竹島の問題を定義する。韓国の諸記録が東海に鬱陵島と独島の二島が多様に呼称されながら存在するというを明記しているにも関わらず、それを否定して一島説を否定する。韓国の記録が鬱陵島のことに限られ、独島に当る島に関する記録がないということを根拠にする否定である。そして、朝鮮人は1904年以前は独島の存在すら知らなかったと断定し、その必要性によって、安龍福の独島認識をも誇張であり虚構であると断定した。

ところが、『高麗史地理志』『世宗實錄志』『新增東國輿地勝覽』などは東海にある二島が相見えるということを記録し、『新增東國輿地勝覽』の「八島総図」には于山島鬱陵島が描かれており朝鮮がそれを認知していたことが分かる。勿論日本はこの内容も否定しているが、安龍福のみでなく大勢の朝鮮人がそれを認識してことを伝える『竹島紀事』という日本の記録がある。安龍福は対馬でムルグセム(鬱陵島)へ鮑取りのために渡海したことを陳述した。これを根拠にして彼が松島(独島)の存在を知らなかったと川上は主張したが、完全な資料の歪曲であった。

対馬藩では鬱陵島と磯竹島をブルンセミと称することも有ったようで、竹島を朝鮮ではブルンセミと呼ぶと聞くが、竹島と朝鮮語でブルンセミと発音するのか。鬱陵島を朝鮮ではブルンセミと呼びはしないのか。鬱陵島とブルンセミは同一なのか否かなどについて釜山の倭館に事実確認を求めた。朝鮮語通詞の中山は朝鮮人等から情報を集め答申した。

その答申は対馬が問い合わせたブルンセミがウルチントウとも呼ばれる鬱陵島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明確に言って、ウルチントウの北東の方にかすかに見えるのがブルンセミであると整理した。鬱陵島と独島の関係以外の説明とは考えられない。

またこれは釜山辺りの朝鮮人が東海に存在する二島をよく認識している当時の社会認識の反映であることを意味する。ムルグセムとブルンセミを武陵島と見做し、二つを鬱陵島にする意見も有るが、「ブルンセミ之儀者ウルチントウより北東に当かすかに相見申由承候事」を離れた意見で成り立たない。

キーワード：川上健三 竹島紀事 安龍福 子山島 ムルグセム ブルンセミ
鬱陵島 書契 小子山 武陵

투 고 : 2008. 11. 30
1차 심사 : 2008. 12. 13
2차 심사 : 2008. 12. 27